



국제리뷰

- 유엔 제56차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리뷰 :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인지 거버넌스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다학제간 국제컨퍼런스 참석기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엔 제56차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리뷰: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인지 거버넌스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유엔 CSW(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56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로, 세부 주제는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의 역할”이었다. 세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함께 패널과 참가국들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회의 내용의 정리와 분석을 통해 우리 농촌여성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I. 의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9/15에 따라 제56차 여성지위위원회는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인지적 제도를 우선 논의 주제로 택하였다.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빈곤은 주로 농촌의 문제로 개발도상국 극빈층의 70%가 농촌에 거주하며, 이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여성 가구주 가구, 아동 그리고 소수 인종이다. 농촌여성은 농업 및 가정 내 노동부담이 과중하며, 토지와 같은 생산 자산 소유권·재산권·시장 접근성이 취약하다. 여성은 115개국에서 동등한 재산권을, 93개국에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남녀 간 소지 소유 격차는 크다. 여성이 소유, 이용하는 토지는 남성이 관리하는 토지에 비해 질이 낮은 경우가 보통이다. 서비스 접근권도 취약한데, 문화적 규범과 관습, 차별적 법으로 인해 여성은 토지·재정 금융·서비스·정보·기술 접근에 제약, 소외되어 있다. 또한 성 역할 분리가 심하여 여성은 지역사회 관리 역할, 남성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소녀는 도시소녀보다 성차별에 고통 받고 있고, 전통 관습의 압박, 사회관계망과 교육기회 제한, 생식 건강에 취약하다.

세계는 불안정한 식량 가격, 자원 경쟁,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농촌개발과 농업정책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식량안보가 증진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여성이 비료·종자·도구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 증대로 개도국 내 총 농업생산량이 2.5%에서 4%가량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1) CSW회의 배포 발제 자료 요약

UN(2011). “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their role in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development and current challeng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2011). “Empowerment of rural women: the role of gender-responsiv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있다. FAO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정보와 기회·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지금보다도 약 23%향상된 생산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농촌여성은 식량생산·환경보호·종자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식량안보, 빈곤감소, 지속가능개발과 같이 심각한 국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UN-Women은 지역 자연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에 토착 여성 집단의 참여를 지원한다.

농촌여성의 복지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급돌봄 노동과 농업생산의 부담이 유급노동 참여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육아휴직·탁아·노인부양·간병 서비스 제공, 이동서비스가 필요하다. 교육·정보 접근성을 위해 농업지도서비스 제공, 농업 및 시장 정보 제공, 토착·전통 농업지식·신기술 교육 제공과 함께 여성이 기술개발 초기 단계 참여와 여성농민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ICT의 농촌 확산으로 여성의 정보 접근성이 증진되어, 이탈리아는 “YOURuralNET”이라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여성 농장경영자들이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농촌여성은 시간제, 계절별, 저임금 일자리 취업률이 높고 무급 가족노동 종사가 많다. 고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고용 창출 사업, 여성들의 생산 다각화,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으로 여성의 진출을 장려하고, 농지 등록, 고용지원, 역량개발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도의 전국농촌고용보장법, 남아공의 아동보육, 재가보호, 서비스일자리 창출, 네팔은 UNDP의 사업개발훈련을 통해 여성들의 소규모 사업(Microenterprises) 설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여성은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소 대표되고 그들의 요구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서비스 제공자, 시민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성인지적 거버넌스는 농촌여성의 요구와 권리를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정책결정에의 참여, 자원과 서비스 접근권 강화,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이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를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수립, 이행, 평가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과 단체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여성차별법과 제도의 폐지, 농업·농촌개발정책의 성 주류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 핀란드 농촌개발 프로그램 준비위원회는 실무자 수가 남녀모두 최소 40%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 데이터 분석, 젠더관련 부서 설치, 공무원 교육, 단체의 농촌여성 리더십교육, 남녀 지도자 대상 성인지 교육 등이 필요하다(UN, 2011).

II. 참가국 사례: 농촌여성 문제와 과제

패널리스트들과 참가국의 발표를 통해 각국의 농촌여성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가국 농촌여성의 상황과 문제, 지원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

- 농촌 여성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성 역량증가의 핵심 쟁점이다. 여성 생산자들은 정책, 문화적 규범 등의 이유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교육은 여성 역량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제한받고 있다. 농촌여성은 새로운 기술,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농촌여성을 대변할 만한 자치 기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알제리)

- 여성이 토지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소액금융 (Microfinance) 관련 융자에서 약 60%가 농촌 지역에서 융자를 얻은 것이고, 이 중 여성은 약 56%이다.(파키스탄)
- 여성의 경우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가정에서의 일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 육아휴가, 아동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여성을 지원해야 하는데, 농촌 여성의 경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촌 여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이 요구되며 정책 수립 결정에도 농촌여성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권장되며 여성들에게도 토지 소유권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인식을 넓혀주며, 자신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핀란드)
- 이태리의 경우 농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및 의사 결정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정책에서 성인지적 접근에 주력하였으며 성인지 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이 농촌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량안보를 국제적 담론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G8같은 논의의 장에서 여성역량 강화와 식량안보의 주제를 엮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 지원을 위해,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여성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2007-2013 여성차별금지관련 농업계획에는 4가지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경제활동 참여, 성 인지적 지표 및 측정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포르투갈)
- 말리(Mali) 정부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농촌여성의 토지 접근권, 기술 접근, 역량 강화, 성평등 의식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다. 2012-2017의 경우 특히 젠더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농촌 여성을 고려한 정책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이 강조되었다. 위 정책은 농촌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여 농촌 여성들에게 토지 소유와 농촌 기구 사용법과 기술 제공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성인지 통계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효과적인 성인지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유엔 우먼의 지원이 요구된다.
- 파라과이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 파라과이의 여성은 법적, 제도적, 문화적인 이유로 금융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대출 이용에도 제한이 있다.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관습으로 농촌 여성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자원 이용과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4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여성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장려를 위한 REAF라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은 아직도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의 경우 문맹 비율 또한 매우 높다. 농촌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여성과 함께 그리고 여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적인 자원 제공과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율권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여성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장애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또한 요구되며 기관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사회 내에서 동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파푸아뉴기니 여성은 남성이나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다. 정치참여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국회의원 109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여성은 농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전통적 사회구조와 여성차별의식이 강하며, 일부다처제, 신부 매매, 강제 결혼, 주술, 폭력, HIV, 마약과 술,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 '변화의 소리'(Voice for Change)라는 조직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해 여성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여성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구는 여성들에게 금융 접근기회 제공,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교육, 현장방문 사업지도, 판매 지원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경제적 세력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010년 부터 2015년 까지 성평등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Gender Equality)을 추진하고 있다. JISB(Joint Information and Services Bureau) 사업을 통해 농촌여성의 경제 세력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JISB는 UN WOMEN의 'One Window Approach' 프로그램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음. 지역에서 한 건물에 10여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와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JISB 설립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진전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장애가 완화되고 있다. 일명 One Window Model, One-Stop-Shop Model인 이 사업의 수혜자의 65% 이상이 여성이고 80% 이상은 농촌주민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JISB 사업의 전국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성인지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농촌여성의 경제적 세력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몰도바)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및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 요소라고 여겨 여성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인적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성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여성의 리더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사회적으로 여성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EU)
- 캐나다의 경우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지역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본의 경우 쓰나미로 인해 농촌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 특히 여성의 피해가 컸다. 지진 구호소에서도 여성의 요구 반영이나 결정권이 약했다. 제3차 양성평등계획을 통해 성 평등이 모든 분야에 도입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촌 여성의 경우 의사 결정 참여에 제한 받는 경우가 많다.
- 뉴질랜드의 경우 농촌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을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미국은 젠더를 Food Security Programs에서 우선 이슈로 여겨왔으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들을 위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성 인지적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시사점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아직도 농촌은 빈곤율이 높고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다. 농촌여성들은 토지와 자원 소유권에 제약이 있고, 도시에 비해 각종 서비스 접근권도 취약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성평등 정책이나 농촌여성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민간단체들도 농촌여성의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법과 제도의 수립을 통해 농촌여성의 권한과 지위 강화에 노력해왔다. 농촌여성을 위한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고,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 지역개발에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수행하고 성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직 취약하다. 농촌여성은 농촌의 주된 농업인력이지만 영농 규모가 작아 소득수준이 낮고, 농지소유나 농가경영주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아 소유권, 재산권 등 법적 지위 기반이 약하다. 근래 농촌 식품가공산업, 관광사업 성장으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하고, 농촌여성들의 전통지식과 경험의 사업화,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경제적 지위의 성장이 기대되기도 한다. 마을개발사업 등 의사결정 참여기회도 증대하고 있으나, 전통적 성역할 구분은 지속되고 있다. 일 역할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남자가, 마을축제 음식 준비 등은 여자가 하는 등 성역할 구분이 지속되고 있다.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전통 관습과 의식의 지배는 도시에 비해 강하고 변화에 저항적이어서, 귀농·귀촌 및 이주여성과 농촌여성이 성 역할 가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농촌 산업의 다변화, 기계화와 ICT 활용 증대, 도시여성과 이주여성의 농촌 유입으로 인한 여성인력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농촌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참여요구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인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촌의 불평등한 젠더의식과 관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여성의 소유권, 재산권,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정보와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고 상호 지원하는 여성 조직의 육성과 지원도 농촌의 불평등한 젠더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농촌여성 지원정책을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과 귀농·귀촌여성들 새로이 대두되는 집단으로 확대하고, 농촌여성들이 농촌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력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UN(2011). "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their role in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development and current challeng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2011). "Empowerment of rural women: the role of gender-responsiv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석기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하와이 주지사 관저 만찬에서 한국 및 일본참가자들과 함께

2012년 하와이 인신매매 방지 컨퍼런스

2012년 4월 NGO 리더, 여성가족부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KWDI 연구자들은 미국 여성정책학센터와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4일 동안 개최되는 “다학제간 지적교류 프로그램: 이주 및 인신매매와 여성인권(Multidisciplinary Intellectual Exchange for Women Leaders from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Philippines)”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미국 여성정책학센터(CWPS, Center for Women Policy Studies)와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NWEC,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필리핀대학교 여성학연구소(Center for Women's Studies, University of Philippines), 일본재단(the Japan Foundation, CGP)이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행사 준비 단계에서 NWEC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할 한국 전문가를 본원에 요청하여 주제 패널리스트 6인과 KWDI 대표로 본부장과 행사지원 연구원이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미국, 일본, 필리핀, 한국의 인신매매 및 여성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각국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이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비엔나 법정”과 여성인권

도착하는 첫날 오후부터 컨퍼런스 일정이 바로 시작되었는데, 카피올라니 대학(Kapi'olani Community College) 컨퍼런스홀에서 4개국 참가자들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한 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국 참가자들은 지적 교류의 목적이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사 두 번째 날 오전 세션에서는 “여권이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논의에 앞서서 아우그스타(Augusta) 프로덕션이 제작한 “비엔나 법정: 여권이 인권이다(The Vienna Tribunal: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1993)”라는 기록영화를 관람하였다. “비엔나 법정”은 1948년 채택된 인권선언에 대해 UN 회원국의 책무를 진단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1993년 인권과 관련된 UN 국제 컨퍼런스가 비엔나에서 개최될 때,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여 젠더에 근거한 여성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비엔나 법정에 참여한 여성들은 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가 여성의 인권보호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비엔나 법정”은 33명의 여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가족 내 학대, 전쟁 중 범죄, 여성신체에 대한 침해,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경제적 침해, 젠더에 근거한 정치적 탄압과 차별의 영역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폭로하고 있다. 비엔나 법정은 용감한 여성들의 공개적 증언을 통해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를 가시화하고, 기록하고, 정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 선언(the UN 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기록영화에는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의 증언도 포함되었는데, 전쟁터에 끌려가 매일 수많은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강요당한 결과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되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끔찍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위안부 할머니는 자존감을 상실하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증언하였다.

국가별 대표 발표 및 전략계획 세션

국가별 대표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논의의 장이 개시되었다. 일본은 주몬지 대학(Jumonji University)의 하시모토(Hashimoto)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장(Chang) 교수, 필리핀 대학의 앨시드(Alcid) 교수, 한국의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가 국가를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 이슈만큼이나 노동착취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미국 대표 발표자는 미국 정부의 반인신매매 프로그램은 인신매매 방지 그 자체보다는 이민 억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대표 발표자는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 노동력 수입을 위한 이민의 길이 열려있는 현실이 미국 이민정책의 이중적 측면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대표 발표자는 미국과 달리 노동착취보다는 성매매 관련된 인신매매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더 부각된다고 지적하였다.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문제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필리핀 대표 발표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 및 이주노동을 장려하여 많은 국민이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독특한 현실을 소개하였는데, 이주노동자가 고국에 송금하는 규모가 필리핀 GDP의 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필리핀 국내의 고용 사정 악화와 노동의 세계화 추세는 필리핀 국민의 해외이주 노동을 증대시키는 요인인데, 다수 해외 이주노동자가 착취 및 인신매매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하와이 컨퍼런스에서 영역별 전략계획 세션(Sector Strategic Planning Session)과 국가별 전략계획 세션(Country Strategic Planning Session)이 각각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영역별 전략계획 세션(Sector Strategic Planning Session)은 4개국 참가자들이 학계, NGO 리더, 선출직 공무원 세 집단으로 나뉘어 각 집단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영역별 전략계획 세션을 마친 후 4개국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영역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영역별 전략계획 세션에 이어 국가별 전략계획 세션(Country Strategic Planning Session)에서 각국 참가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 세션에 참여하여 국가별 행동계획을 논의하였다. 영역별 세션과 국가별 세션 후에는 전 참가자들이 컨퍼런스 홀에 모여 각 국가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영역별 전략세션 내용을 보면, 선출직 공무원 집단에서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의 개선 등 인신매매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적 체계 개선, 이주노동자 및 가사도우미의 근로자 권리 보장, 인신매매에 대한 남성의 지지 확보, 각국 의회에 인신매매관련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학계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정의가 국가별 혹은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 및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 중개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신매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이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인신매매 위험성은 결혼 중개업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쌍방에 제공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여 상대남성에게 소개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국제결혼 자체가 인신매매의 통로인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예비 신부·신랑 대상 사전 교육 강화로 피해사례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에서 한국 참가자들은 정부, NGO, 학계 전문가들의 반인신매매 네트워크 구축, NGO간 국제 연대 구축, 정부간 국제협력 구축, 인신매매 관련 여성정책 포럼 개최, 한국 여성의 해외성매매 사례연구 및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전용쉼터 및 상담소 확대, 2013년까지 인신매매 방지 법안 통과 및 UN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을 행동계획으로 제안하였다.

하와이 정계 및 교육계 지도자와의 교류

하와이 컨퍼런스 중 미국 주최 측 주선으로 하와이 교육계 및 정계의 리더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도착 첫날 일정을 마친 후 저녁 그린우드(M.R.C. Greenwood) 하와이 대학 총장이 주재하는 만찬에 4개국 참가자들이 초대되었다. 아름다운 언덕에 위치한 총장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참가자들은 각국의 여성의 지위 및 사회제도와 관련된 담소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 하와이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하와이 시내에 위치한 워싱턴 플레이스(Washington Place) 주지사 관저 만찬에 초대되었다. 주지사는 하와이 주의회 여성의원들을 초대하여 4개국 참가자들의 만찬 테이블에 동석하게 하여, 참가자들은 하와이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각국의 여성, 인권, 사회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한국의 향후과제

이번 하와이 컨퍼런스 참석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한국 참가자들에게 학습과 자극의 기회가 되었다.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한국의 상황은 척박하다. 한국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2000년 서명하였지만 비준하지는 않았고,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포괄적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는 형법과 성매매처벌법에 명시된 개별 조항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인신매매 처벌 및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2010년 김춘진 의원과 2011년 이정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다. 법무부는 2011년 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성착취와 관련된 인신매매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대표들은 NGO 및 정부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여성의 해외 성매매와 관련된 상황은 실태파악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 간 협조와 공조가 절실하다. 해외여행을 통해 한국남성이 아동을 성구매하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기 그지없다. KWDI는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 인신매매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